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’26.05.27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연구혁신총국(DG RTD) 개편설에 연구계 반응 엇갈려(5.21)

- 최근 집행위는 EU 예산 집행 기능을 중앙집중화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을 추진 중
- 이에 따라 연구혁신총국의 구조가 개편되거나, 새로운 중앙 투자 조직인 ‘DG Invest’ 아래로 편입될 가능성이 거론
- 현재까지 집행위는 이번 개편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음

○ EU, 50억 유로 규모 ‘스케일업 유럽 펀드’ 본격 출범 준비(5.21)

- EU가 미래 유럽 기술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‘스케일업 유럽 펀드(Scaleup Europe Fund)’, 오는 6월 3일 공식 출범 예정
- 유럽혁신위원회(EIC)는 스웨덴 투자회사 EQT를 펀드 운용사로 선정
- 해당 펀드는 수익 목적을 넘어, 핵심 기술과 지식재산(IP), 창출된 기업 가치가 유럽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

○ 프랑스 대통령, 유럽에 양자 기술·반도체 분야 투자 가속 요구(5.26)

- 마크롱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(CNRS)와 CEA 등에 유럽 연구·기술 연합을 구성하자고 제안
- 또한 유럽 우선주의(European preference)에 기반한 공동 전략 및 산업 협력을 강조하며 해외 기술 의존의 위험성 언급
- 유럽 차원의 주권적 기술 스택 구축을 강조하며 공공 조달에서도 유럽 우선주의를 강화하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, 이미 국가 차원에서도 비슷한 전략 추진 중

○ (기타) ▲유럽경쟁력기금, 사실상 ‘방위산업 펀드’ 되나(5.21) ▲연구 격차 해소 위한 EU의 참여확대 지원, 국가별 맞춤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 나와(5.26) ▲유럽 AI 스타트업들, 산업 현장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특징 보여(5.26)